

## 충남발전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오전 11시에 대전리베라호텔 1층 토치홀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발연과 농경연 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있는 정책 개발에 공동 협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협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충남에 대해 보다 전문적·학술적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농업부문 녹색성장, 녹색기술 활용과 신제품 육성이 관건

CDI-KREI 주최,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 송용호 충남대총장, 관계 공무원 및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열린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일본, 유럽·OECD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 및 정책 프로그램 정보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 및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첫 주제발표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로버트 멘델존 교수는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과 적응'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농업은 비료사용 감소, 저경운 농법, 가축사육방법 개선 감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윌프리드 레그 무역·농업국 과장은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 적응 그리고 완화'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소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합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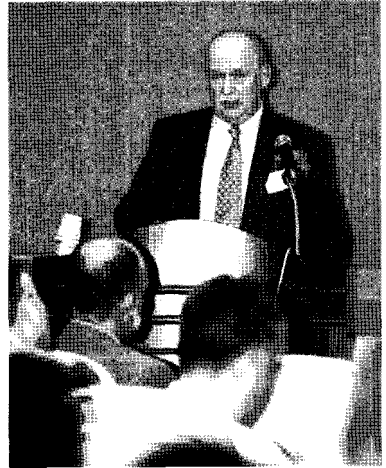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발표

를 통해 "기후가 변화하면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농업기 후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지대 재편, 병해충관리 및 재배 기술 보급, 저탄소 녹색기술의 활용 및 신품종 육성, 위험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키요타다 하야시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 장은 '일본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전략'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전략을 농업활동의 전 과정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전방과정에서는 토양 및 농기계사용으로부터의 직접 배출 저감, 후방과정에서는 농기계, 비료 및 농약 생산,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녹색성장'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신 품종, 대체작목, 저투입 농법 등 온난화 대응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인사말(대독)에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기술과 녹색에너 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면서 "충남에서도 농업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채 소의 녹색에너지 확대, 태양열 등의 신 재생에너지 활용, 가축분뇨 자원화와 녹색 축산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 ‘당진항 발전’ 배후단지에 달렸다

충발연 워크숍서 내항개발·연륙교 건설 필요성 제기



당진항이 국제적인 항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증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진(신평)과 내항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견해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9월 8일 오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한 당진내항지역 개발과 내항진입도로건설 대응방안을 논의키 위한 워크숍에서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항만 전문가와 함께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당진항은 15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39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 49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1억t이상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환황해권 중심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의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연구위원은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중요성과 연결교량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에서 세계물류시장 규모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를 예고하며 항만과 내륙 간 물류 네트워크 형성과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접근성 강화와 부가가치 공동창출을 위한 내항과 당진 간 연결 교량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내항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활용 방안'이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국내외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례를 들어가며 제조, 물류 등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복합물류단지와 연계한 당진 내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공동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조직구성과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 할 것을 제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당진군청 이능호 해양정책관 등 토론자들은 당진군의 현안인 내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함을 강조했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무역항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항과 당진(신평)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히 앞당겨져야 함을 강조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출처 - 중도일보 9월 9일자]

## 충남발전연구, 호주 퀸즈랜드 대학 초청 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D)은 한밭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10시부터 충발연 대회 의실에서 호주 퀸즈랜드 공대(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와의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QUT에서 '지역발전계획 실습' 교과목을 수강중인 30여명의 학생들을 한밭대가 초청,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전·충남의 현황을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 하면서 성사되었다.

워크숍은 충발연 김용웅 원장의 '한국의 공간 변화와 지역개발정책', 충발연 이인희·오용준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시아에 대응한 충남의 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진 뒤, QUT 학생들과 함께 대전·충남권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벌였다.

QUT 4학년에 재학중인 '크리스 루이스(Chris Lewis, 21)'는 토론에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의 연도별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적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 대 중국-충청권-영남권 교역의 동서핵심축 견인해야 IC 인접 시·군의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등 필요

-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 심포지엄서 제기

지난 5월 28일 개통한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서해안 시대 새로운 개발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 중국-영남권 교역의 동-서간 성장동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과 공동으로 7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전·충남 발전 전략과 재발전"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두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목원대학교 김원배 교수는 "두 고속도로 및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총6,474억원의 불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는 대중국 교역량을 촉진시키고 충청권과 영남권을 잇는 소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전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만권의 산업단지, 서해안물류거점으로 급부상한 당진·평택항,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청주공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핵심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강영주 연구위원 역시 "서해안, 호남, 경부, 중부내륙, 청원-상주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돼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어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진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중부 및 동·남부지역 대중국불류의 수출입 거점지로 육성해야 함은 물론, 영남권과 강원·충북 등에서 들어오는 교역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

간 물류기지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내 동질간 증대를 위한 각종 교류행사, 지역농산물의 권역 내 소비를 위한 지산지소 운동, 관광자원의 교차이용, 축제 등의 공동개최, 해외마케팅의 공동추진 등 인적·문화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향후 발전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는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두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국가 및 지역의 핵심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발휘 ▲개별적·지역적 개발보다는 광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 ▲고속도로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고도화·소프트화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대전광역시 이증환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 서천군 이덕구 정책기획실장, 당진군 손인옥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